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이정은	소속(학부/과)	산업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파견 학기	2019년 2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응용과학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어학능력 향상과 타문화교류의 기회로 교환학생 국가를 찾아보았고 그 중 유럽국가에 있는 독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의 어학능력 향상의 이유와 EU국가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출국 전 서류 준비는 국제교류원에서 온 메일을 그대로 실행하면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는 독일에 도착하고 난 뒤에 하일브론 대학교에서 은행과 시청에 데려다 주면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큰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항공권 구입은 왕복으로 독일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사는 것이 가장 저렴했고 같이 가는 교환학생 친구들과 상의하고 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신청은 처음에 서류 신청할 때 기숙사 신청 유무부분에 체크를 하면 나중에 독일 학교 측에서 메일로 합격 통보가 옵니다. 저희 교환학생들은 (다른 학교 포함) 다 붙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강신청은 각 과마다 하일브론 대학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강신청 방법 및 과목 소개를 해 줍니다. 과목을 여러 개 신청해서 수업을 조금 들어보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취소가 가능해서 처음에는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해서 출석한 뒤 결정해도 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하일브론 대학은 두 개의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과대학위주의 캠퍼스인 손하임캠퍼스와 유로파플라츠 캠퍼스가 있습니다. 손하임캠퍼스는 제가 살았던 막스플랑크 기숙사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상대적으로 유로파플라츠 캠퍼스보다 작았습니다.

유로파플라츠 캠퍼스에서는 독일어강의와 영어강의 등을 들었는데 주로 문과나 교양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이 곳은 막스플랑크 기숙사에서 버스를 타고 15분정도 걸렸고 주변에 하일브론 시내가 있어서 시내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일브론대학교는 하일브론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안의 여러 도시들과 근교국가(파리, 스위스 등)를 갈 수 있고 근처 슈투트가르트공항과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저가 항공사들을 통해 유럽 내 여러 국가를 갈 수 있어서 지리적 위치는 좋은 편입니다.

제가 간 시기가 8월 말에서 2월이었는데 8월부터 10월까지의 여름부터 초가을의 날씨였고 그 이후는 겨울 날씨였습니다.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겨울은 걱정했던 것 보다 많이 춥지는 않았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교양과 어학강의 위주로 수업을 들었는데 비즈니스 영어 수업은 필수과목이었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단어나 여러 가지 실용적인 문장 사용 등을 배웠고 ppt 발표와 기말 시험 1번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독일어 수업은 회화와 문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모두 영어로 수업하였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처음에 이메일을 통해 보증금을 내면 되고 기숙사비는 한달에 3~400유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비는 개인차가 큰 편이지만 저는 여행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지만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기 보다는 다른 유럽 내 국가 여행을 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니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외국 교환학생들과 축구나 배드민턴, 댄스 동아리를 드는 것 같습니다.

학교 학식당은 멘자를 이용하면 되는데 멘자는 뷔페식으로 그릇에 담는 무게만큼 학생카드를 찍고 먹으면 됩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독일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몇 번 이용하지 않고 보통 기숙사에서 음식을 요리해먹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을 다녀온 뒤로 전보다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다르지만 영어실력은 크게 향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도시를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